

여수 재난 피해주택 신속 설계·감리비 50% 감면

시, 여수건축사회와 업무협약 피해주민 행정적 지원 등 협력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지난 19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 주민 안내 및 행정절차 지원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제공 ▲신축 대상 주민 설계·감리비 50% 감면 ▲추진 상황 점검 및 협의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주민

에게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복구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지난 19일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

27일까지 산업통상부 제안서 제출 율촌 등 6개 산단 등 742만평 규모

광양시가 전남도와 함께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신청에는 세풍산단, 율촌제1산단 등 기존 6개 산업단지와 전라남도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포함해 약 742만평 규모의 부지가 반영됐다. 해당 부지는 소재 생산부터 부품 제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현이 가능한 집적화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광양시는 수년간 이차전지를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 투자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등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와 함께 전라남도도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및 특화단지 조성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2월 11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양시, 나주시 및 광주·전남 지역 10개 대학과 인재양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앞으로도 광양시는 전라남도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공모 절차에 철저히 대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차전지는 광양시가 수년간 전략적으로 준비해 온 핵심 산업"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논의와는 별개로, 전라남도도 긴밀히 협력해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및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산업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육용오리농장 AI 항원 검출...확산 방지 총력 대응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가용 자원 총동원 초기 차단 방역

구례군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용방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 대응에 나섰다.

이날 김순호 구례군수는 항원 검출 보고를 받은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6개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지시했다. 특히 "AI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용 자원의 총동원과 선제적 차단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와 살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금 농가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 방역기와 살



구례군이 지난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 대응에 나섰다.

수차를 동원해 소독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김 구례군수는 현장을 점검하며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AI를 초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현장 대응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도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섬 지역 해양유산 조사 나섰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업무협약

고흥군이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손잡고 섬 지역 해양유산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에 본격 나선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팔영산출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흥군 섬 지역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조사 자료 및 연구 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공유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및 현지 고고회 개최를 통한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집중 조사 대상은 고흥군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전체적인 조사 기획과 학술 연구를 총괄하고, 고흥군은 현장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주민 협조 체계 구축을 전담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단계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 내용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해양유산 조사 보고서 발간과 영상 기록물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조사 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흥=주지중 기자 gju@

순천시 '따순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사업 참여자 27일까지 모집

순천시는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공동체 발굴·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따순마을 만들기'는 이웃 간 관계망을 회복하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필요를 찾아 실행해 나가도록 돕는 순천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순천시 소재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이다.

사업은 공동체 활동 단계에 따라 1단계(만남)와 2단계(실천)로 구분해 지원한다. 1단계 '만남'은 신규 공동체, 주민 모임 형성 등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는 단계이며, 2단계 '실천'은 주민 주도 마을문제 발굴 및 해결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맞춤형 지원

동아리 활성화·집들이 비용 지원

27일까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

곡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기 위해 4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귀농·귀촌인-지역주민 화합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다터 교육 운영 ▲귀농·귀촌인 집들이비 지원사업 ▲그린대리 동네작가 선발 사업으로, 귀농 초기 적응부터

지역 교류, 영농 역량 강화, 홍보 활동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귀농귀촌인-지역주민 화합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 5인 이상이 포함된 10인 이상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동아리 1팀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감사비와 교육재료비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귀농다터 교육 지원사업'은 이주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선도농가와 1:1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영농기술과 품질관

리, 경영·마케팅, 창업 노하우 등을 배우도록 지원하며, 총 4팀을 선발해 실습교육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집들이비 지원사업'은 전입 3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그린대리(곡성군) 동네작가 선발 사업'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10명을 선발해 원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4건, 건당 3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개 사업의 신청 기한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접수는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사업별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